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Internalization Problem and Attachment to Parent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in Middle School Students

최윤정(Youn Jung Choi)¹⁾

ABSTRACT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influence of internalization problem and attachment to parents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as well as on the attachment to parents as moderators in the influence of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problem o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To verify the hypothesis, a survey research method was applied using stratified cluster sampling method, and 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Eleven schools were selected randomly from each of the eleve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in Seoul,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1,200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nalization problem has negatively affected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Secondly, the moderators of the attachment to parents in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above mentioned analysis, it can be deducted that, intervention with internalization problem is required in order to promote the adjustment to school life, and the importance of the attachment to parents should be addressed in the intervention for improving adjustment to school life.

Key Words : 심리적 문제(internalization problem), 애착(attachment), 학교생활 적응(adjustment to school life).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동안은 급격한 신체적, 생리적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또한 미래의 정서적인 영역과 학업내의 성공이나 부적응의 근원이 될 수 있다(Roeser 등, 1999). 청소년 시기는 자

¹⁾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Youn-Jung Choi,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wangju University. Gwangju 503-703, Korea E-mail : mikyj@hanmail.net

기 자신의 성격을 부단히 형성하는 시기이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기로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태를 연구한 결과, 우울, 불안, 반사회성 등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 부적응적이라고 판단된 비율이 53.9%로 나타났다(최윤진 외, 1990). 또한, 김혜영(2000)은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소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 사회적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제시하면서 일반 청소년의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가 매우 높다고 제시하였다.

Eccles 등(1993)은 청소년의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증가는 학업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성적위주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결국,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시기는 아직 부모의 보호아래 놓여있는 시기이고, 가족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오승환, 2001; 옥정 외, 2001; Holahan & Moos, 1986; Pettit 등, 1997). Dubois 등(1994)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애착이다.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장휘숙, 1997; Greenberg, 1983; Paterson 등, 1995). 애착형성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실패하는 경우 아동기는 물론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애착형성에 실패하는 경우 정서적인 안정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장휘숙, 2001). Bowlby (1988)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정기저(secure base)로 남아 있으며,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애착체계가 재활성 되어 부모 및 애착대상에게 도움이나 심리적인 안정을 구한다고 하였다. Ainsworth(1989)는 청소년기의 혼란은 청소년이 획득해야할 분리와 재애착의 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개인의 애착수준은 삶의 과정을 통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적응과 연관되어있다. 부모와의 애착의 질은 삶의 안녕과 스트레스 상황을 견디고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인성 특성을 가지는 바람직한 심리적 요소와 관계가 있다(Diehl 등, 1998; Nancy, 1996).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부모와의 애착과 자녀의 심리적 안녕,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와의 애착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Raja 등(1992)은 부모와의 애착이 낮은 청소년이 높은 우울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Rice(1990)는 부모와의 애착의 질은 우울, 불안, 분노와 죄의식 등의 내재화 문제와 연관되어있음을 발견했고, Collins(1996)와 Vivona(200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시했다. 부모와의 정서적 애착의 질은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관계성을 기르는데 우선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대의 정서적 규제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아동이 일차적인 수발자(caregiver)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Hess & Holloway, 1984; MacDonald 등, 1984)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정형희(1993)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고 대인관계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김재희 등(2001)은 안정적인 부모와의 애착은 자녀의 불안을 감소시켜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남(2001)과 지수경(2001)은 부모와의 애착이 좋을수록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위에 제시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심리적인 부적응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Rutter(1979)는 보호적 메카니즘은 부적절한 발달 결과를 이끄는 위험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중학교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모와의 애착이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방법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 추출방법은 층화집락표집(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층화추출법과 집락추출법을 통합한 표본추출방법이다. 먼저 1단계에서 서울시의 지리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구분해 놓은 교육청을 하나의 층으로 선택하였고 서울시에 있는 11개 교육청을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 11개 교육청에서 무작위로 중학교 한 곳씩을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하여 각 학교에서 3-5개 반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정확한 설문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11개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2003년 7월 15일부터 9월 4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총 1200부를 설문조사하였고 부정확한 응답을 한 31부를 제외한 1169부를 사용하였다.

2. 변수측정 및 신뢰도

1)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박현선(1998)이 구성한 학교적응유연성척도를 사용하였다(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2002). 문항의 구성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7문항, 학업 및 성적에 대한 태도 5문항, 학교 규범 준수에 대한 10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4점(매우 그렇다)에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화 하였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점수는 22-88점까지 분포가 가능하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일관성 법에 의해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사전조사는 Cronbach's α 값이 .76으로 나타났고 본 조사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문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의 일부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chenbach (1991)가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미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 List)를 토대로 오경자 등(1998)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척도이다. CBCL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사회적 적응 및 정서, 행동문제를 평가하는 유용한 임상적 도구이며, 현재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번역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를 내재화 문제로 측정하였다. 문항 구성은 사회적 위축 9문항, 우울, 불안 1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3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자주 그렇다' 3점까지로 24-72점으로 분포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음으로 심리적으로 부적응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74였고, 본 조사에서는 .90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3) 부모와의 애착

Armsden과 Greenberg(1987)의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를 수정한 개정본 (IPPA-R)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신뢰있는 다요인적 애착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초기 부모와

의 관계로 형성된 애착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IPPA-R은 상호신뢰, 의사소통, 소외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을 상호신뢰 10문항, 의사소통 7문항, 총 17문항으로 조사하였고 리커트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점수는 17-85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사전조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아버지와의 애착은 .81, 어머니의 애착은 .90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는 아버지와의 애착과 어머니와의 애착 모두 .92로 나타남으로 도구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4)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은 성별, 나이, 학년, 동거가족, 부모의 교육정도, 부모의 직업, 가족의 경제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 검토작업(data cleaning)을 진행한 후 SPSS 12.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 일원 변량분석(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심리적 문제와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부모와의 애착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독립변인들을 센터링¹⁾하고, 센터링 변인들을 서로 곱해서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회귀시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총 1169명중에서 남자는 558명으로 47.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자는 611명으로 52.3%로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가족구조는 양친부모가 1049명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한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빈 도	백분율(%)	
성 별	남	558	47.7
	여	611	52.3
학 년	중1	334	28.6
	중2	430	36.8
	중3	405	34.6
가족구조	친부모	1049	89.8
	계부모	28	2.4
	한부모	76	6.5
	기 타	15	1.3
경제적수준	상	93	8.0
	중 상	322	28.0
	중	546	47.5
	중 하	155	13.5
	하	34	3.0

1) 변인들을 센터링하는 것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박광배, 1999).

모 가족 6.5%, 계부모 가족 2.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조손가정이나 친척집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경제적인 수준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상이라고 대답한 응답률이 28%였다. 전체 응답자의 85.5%가 중이상이라고 대답함으로써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주요특성

청소년의 주요 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청소년 적응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심리적 문제에서 우울·불안보다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애착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 성별과 가족구조별로 적응에 차이를 보인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과 아노바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문제 중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표 2> 청소년의 주요특성에 대한 기술적 분석

요 인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문제	2.84	1.00	1.61	.38
우울·불안	3.00	1.00	1.57	.42
사회적위축	3.00	1.00	1.66	.41
아버지와의 애착	5.00	1.00	3.35	.81
어머니와의 애착	5.00	1.00	3.52	.77
학교생활적응	4.00	1.09	2.93	.43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

요 인	남(n=558)		여(n=611)		t
	M	Std.	M	Std.	
심리적 문제	1.60	.39	1.62	.36	.96
우울·불안	1.53	.42	1.61	.40	-3.02*
사회적위축	1.67	.42	1.64	.40	-1.10
아버지와의 애착	3.39	.78	3.32	.83	1.29
어머니와의 애착	3.54	.71	3.49	.81	.96
학교생활적응	2.92	.40	2.94	.45	-1.10

* $p < .05$

더 우울하고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은 우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최윤정, 2004; Weissman 등, 1991)는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사회적 위축,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울과 불안, 어머니와의 애착, 학교생활적응에서 가족구조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Scheffe를 통해 사후검증을 하였다.

〈표 4〉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

요 인	양친부모(n=1049)		계부모(n=28)		한부모(n=78)		기타(n=15)		F
	M	Std.	M	Std.	M	Std.	M	Std.	
심리적 문제	1.60	.37	1.69	.31	1.73	.42	1.71	.45	3.57*
우울·불안	1.56	.41	1.58	.38	1.69	.45	1.71	.47	3.80**
사회적위축	1.65	.41	1.69	.34	1.77	.44	1.71	.45	2.39
아버지와의 애착	3.37	.80	3.15	.83	3.22	.96	3.38	.66	1.28
어머니와의 애착	3.55	.75	2.94	.87	3.42	.86	3.29	.80	6.69***
학교생활적응	2.95	.43	2.72	.48	2.84	.41	2.74	.32	4.96**

* $p < .05$ ** $p < .01$ *** $p < .001$

그 결과,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는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계부모 가정 청소년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부모가정이 대부분 새어머니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머니와의 애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또한, 새로운 가족구성원에 적응하는 것이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Hertherington, 1989).

3. 부모와의 애착의 조절효과

1) 심리적 문제,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부모와의 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학교생활적응 모형의 F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VIF계수가 2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

〈표 5〉 심리적 문제, 부모와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요 인	β	t
심리적 문제	-.190	-6.70***
아버지와의 애착	.156	3.98***
어머니와의 애착	.189	4.81***
R^2	.188	
수정된 R^2	.182	
F	87.41***	

*** $p < .001$

있으며, d통계치도 1.81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²⁾에도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이 설명하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18.4%로 나타났다.

먼저, 심리적 문제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애착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심리적 문제($\beta = -.190$), 어머니와의 애착($\beta = .189$), 아버지와의 애착($\beta = .15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높은 경우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부모와의 애착의 질이 높으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이경남, 2001; 지수경, 2001; Hess & Holloway, 1984; MacDonald 등, 1984; Roeser 등, 1999).

2) SPSS for Windows의 경우 연속적으로 수집된 자료의 오차항의 독립성은 Dubin-Waston의 d통계치를 통해 판단할 수 있고 통계치가 2에 접근하면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다(잔차의 독립성)고 말할 수 있다(양병화, 1998).

2) 부모와의 애착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부모와의 애착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아버지와의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VIF계수가 2.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통계치가 1.784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아버지와의 애착은 주효과($\beta = .298$)와 상호작용효과($\beta = -.069$)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의 수준과 상관없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아버지와의 애착의 질이 높으면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의 애착의 질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와의 애착의 상호작용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

〈표 6〉 아버지와의 애착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심리적 문제	-.211	-7.48***
	아버지와의 애착	.288	10.18***
2단계	심리적 문제	-.216	-7.62***
	아버지와의 애착	.298	10.46***
	심리적 문제×아버지와의 애착	-.069	-2.53**
	R^2	.172	
	수정된 R^2	.170	
	R^2 변화량	.005**	
	F	80.715***	

** $p < .01$ *** $p < .001$

〈표 7〉 어머니와의 애착의 조절효과

	요 인	β	t
1단계	심리적 문제	-.212	-7.20***
	어머니와의 애착	.318	10.55***
2단계	심리적 문제	-.212	-7.50***
	어머니와의 애착	.318	11.06***
	심리적 문제×어머니와의 애착	-.093	-3.42***
	R^2	.181	
	수정된 R^2	.179	
	R^2 변화량	.008***	
	F	85.736***	

*** $p < .001$

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식의 설명력에서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회귀식의 설명력을 뺀 R^2 변화량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R^2 변화량이 .005($p < .01$ 수준에서 유의미)이므로 아버지와의 애착의 상호작용 강도는 .005였다.

둘째, 어머니와의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VIF계수가 2.0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d통계치가 1.809로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표 7>과 같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애착은 주효과($\beta = .318$)와 상호작용효과($\beta = -.09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의 수준과 상관없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심리적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어머니와의 애착의 질이 높으면 학교생활 적응도를 높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의 질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와의 애착의 상호작용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식의 설명력에서 상호작용항이 포함되지 않은 회귀식의 설명력을 뺀 R^2 변화량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R^2 변화량이 .008($p < .001$ 수준에서 유의미)이므로 어머니와의 애착의 상호작용 강도는 .008였다.

I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심리적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부모와의 애착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었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우울과 불안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에 비해 양부모 가정 청소년이 어머니와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문제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애착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심리적 문제($\beta = -.190$), 어머니와의 애착($\beta = .189$), 아버지와의 애착($\beta = .15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인 문제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조절변수로

서 부모와의 애착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는 단순히 청소년 시기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정서적인 영역과 학업내의 성공이나 부적응의 근원이 될 수 있다(Roeser 등, 1999). 단순히, 사춘기에 경험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간주하기에는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심리적인 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정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일반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일반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결국, 부적응 청소년을 예방하는 부분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사회비용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에 있어서 성 차이가 존재함으로 그에 맞는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과 불안이 높게 나타났다(최윤정, 2004; Weissman 등, 1991). Norman(1997)은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은 사회활동에 참여시키는 데에 있어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자 청소년은 우울성향이 강함으로 스포츠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해야하고, 남자 청소년은 비행과 공격성향이 강함으로 정서적 표현을 길러줄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야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교육을 시행하거나 사회적인 개입을 시도할 때 성에 따라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들에서 가족구조는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와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별로 심리적 문제, 학교생활적응, 부모와의 애착의 정도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기능의 구체적인 차이를 연구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양친부모 가정보다는 구조적으로 결손되어 있는 가정의 청소년이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더 높다는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다.

구체적으로 양친부모 가정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우울과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있어서는 부모의 모델링이 중요하고 균형있는 관심이 필요하지만, 한부모의 결손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에게는 한부모 이외에 결손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일반 성인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erner(1986)와 Garmezy(1991)는 교회, 학교 또는 다른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타인의 지지를 받는 것이 긍정적인 적응결과에 공헌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계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친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어머니와의 애착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적응에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는 이혼가정청소년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재혼가정과 혼합가정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좀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혼률과 재혼률의 증가를 보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할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검증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

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녀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애착 둘 다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utter(1987)는 부모와의 안정적인 초기 애착은 자녀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면서, 부모-자녀 관계의 안정정과 조화는 위험 환경에 대한 어떤 보호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휘숙(1997)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균형적인 애착이 자녀의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제시한 것처럼 청소년의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와의 애착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와의 애착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족에서는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을 개발하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김재희 · 주은선(2001).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07-125.
- 김혜영(2000).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광배(1999).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학지사.
-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 정 · 오윤희 · 정현옥(2001). 청소년기 애착유형과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재소중인 비행집단, 위험집단, 정상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2), 259-270.
- 이경남(2001). 초기청소년의 어머니 애착과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문집*, 12, 91-103.
- 양병화(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 장휘숙(1997a).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한국 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지수경(2001).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 서초구립 반초 종합사회복지관 연구지원팀 & 서울대학교 실천 사회복지연구회 공저(2002).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 척도집*. 나눔의집.
- 오경자 · 이혜련 · 홍강의(1998). 한국판 CBCL의 문제행동 중후군 척도 재구성을 위한 연구. *서울의대정신의학*, 23, 52-54.
- 최윤진 · 구창모 · 정문성(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112-114.
- 최윤정(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5, 227-254.
- Bowlby(1988). *A secure :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 Routledge.
- Collins, N. L.(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 Implication for expla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4), 810-832.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bouvie-Vief, G.(1998). Adult attachment styles :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656-1669.

- DuBois, D. D., Felner, R. D., Meares, H., & Krier, M. (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511- 522.
- Eccles, J. S., Midgley, C., Wigfield, A., Buchanan, C. M., Reuman, D., Flanagan, C., & Maclver, D. (1993).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 The impact of stage/enviroment fit. *American Psychologist, 48*, 90-101.
- Garnezy, N.(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Garrison, C. Z.(1990). A longitudinal study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581-585.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h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12*, 373-386.
- Herthringhton, E. M.(1989). Marital transitions : A child's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4*, 303-312.
- Hess, R. D., & Holloway, S. D.(1984). *Family and school as educational institution*. In R. D. Parke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lahan, C. J., & Moos, R. H.(1986). Personality, coping and family resources in stress resistance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re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389-395.
- MacDonald, K., & Parke, R. D.(1984). Bridging the gap : Paren-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 Nancy, L. C.(1996).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 Implication for Explnation, emotion,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4), 810-832.
- Norman E.(2000). *Resiliency enhancement*. Columbia University Press.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1997).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seven-t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Paterson, J., Pryor, J., & Field, J.(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21*, 471-485.
- Rice, K. G.(1990). Attachment in adolescence; A narrative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511-538.
- Roeser, R. W., Eccles, J. S., & Freedman-Doan, C. (1999). Academic functioning and mental health in adolescence : patterns, progressions, and routes from childhood.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5*-174.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Vivona, J. M.(2000). Parental attachment styles of late adolescents : Qualiti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16-329.
- Weissman, M. M., & Klerman, G. L.(1991). Gender difference in depression in adolescence. In R. M. Lerner, A.C, Petersen, & Brooks-Gunn(Eds). *Encyclopedin of adolescence*. Nwe York. Garland.
- Werner, E.(1986). Resilient offspring of alcoholics :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18.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47*(1), 34-40.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4년 12월 23일 채택